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909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연중 제15주일

2 0 2 6

0 7

1 2

주보

입당송 시편 17(16),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이사야서 55,10-11

화답송 시편 65(64),10ㄱㄴㄷㄹ.10ㅁ-11.12-13.14(◎ 루카 8,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로마서 8,18-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마태오 13,1-23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Q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놀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두렵기도 합니다.

A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창세 3,19) 있는, 땀 흘려 일하는 노고가 있어야 근근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며 모자란 것을 채우고, 필요한 것을 마련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가 되어선 곤란합니다. 일은 우리 삶의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 반쪽은 일이 아니라, 즐거움과 누림의 놀이와 쉼이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과 놀이와 쉼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삶의 중심이 잡히고 몸도 영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은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 없이, 그냥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선물은 선물다워야 합니다. 삶이 선물이라면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누리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이렛날에 쉬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직 하느님만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도 내 곁에 있을지 나도, 그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리고 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다고, 일한다고,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곧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누리십시오. 누리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도 모르는 법입니다. 내일은 하느님께서 챙겨주십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jubo@catb.kr)

- 매주 첫째 주에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는 ‘사랑이 피어나는 곳’은 다음주 주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기도지향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7월	목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봉사,자선
1주	260	8	7	2
2주	750	1	6	7
3주				
4주				
5주				
합계	1,010	9	13	9

교황님 7월 지향 기도

<인간 생명 존중> 인간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하여 모든 단계에 있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합니다.

위령기도

최정진 클라라 모친이신 김정운 세실리아(87세) 교우께서 7월 8일(수) 09시 30분 (미국시간)에 선종 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님들의 기도 덕분에 김익(요셉) 고인의 장례미사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본당 야외 미사

- 일시 : 7월 12일(주일) 10:00
- 장소 : San Buenaventura State Beach (901 San Pedro St. Ventura, CA 93001)
*주차장은 C 구역(C section)입니다.
- 준비물 : 돛자리, 바람막이(바람 때문에 쌀쌀할 수 있습니다.)
- 일정 : 10시 미사,
11시 식사,
12시 30분 조별 게임 (홀라후프, 제기차기,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15시 시상 및 경품추첨,
15시 30분 마침기도 및 뒷정리
- 경품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 정석건 (쌀 20포대+300불), 김미숙 (골프공), 민문숙 (과자), 김선태(라면 20박스), 임레지나(아보카도 오일 30병 + 300불), 문기선, 정범순(400불), 김영섭(200불), 김상우(200불)

2. 꾸르실료 (여성 제 51차)

- 일시 : 7월 16일(목) - 19일(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treat Center (20124 Saticoy St. Winnetka, CA 91306)
꾸르실료에 참가하는 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맞이 '33일 간의 봉헌'을 위한 특강

- 일시 : 7월 25일(토) 10:00 AM - 4:00 PM
- 장소 : 바실 성당 지하경당 (637 Kingsley Dr. LA CA 90005)
- 회비 : 20불 (점심 제공)
- 신청 마감 : 7월 19일(주일) 까지

4. 제 35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일시 : 8월 22일(토) 09:00-16:00
- 장소 : St. John of God Catholic Church (3819 Ploneer Blvd. Norwalk, CA 90650)

- 회비 : 참가비 20불, 도시락 15불
- 문의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213-500-6722
- 주제 :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 강사 : 정현철 알렉시오 신부, 최성영 요셉 신부, 김대선 바오로 신부

5. 북가주 미션순례

- 일시 : 8월 19일(수) - 22일(토)
- 장소 : 북가주 미션 12곳
- 전대사 : 아씨씨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희년 전대사
- 비용 : 1190불(25명 이상), 1140불(35명 이상)
- 문의 : 엠마오 투어(콜베 213-447-3212)

6.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7월 12일 연중 제15주일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
제1독서 : 설옥진 카타리나 제2독서 : 이경숙 도미니카	제1독서 :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하주영 프란치스코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7월 5일	\$850	\$270		\$1,120	20/0		20/0
7월 12일							
7월 19일							
7월 26일							
합 계	\$850	\$270		\$1,120			

교무금 현황 민원기(7), 윤정구(7,8), 백니키(6,7), 김광일(7)